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6>

### 중생 근기따라 법문 무량무변

(722호 이어서) 이때 장자는 돌연 날을 잡아 잔치를 크게 차리고, 대소일가와 원근친척을 모두 청하러 한다. 날이 되자 장자는 자리에 올라 공자를 곁에 불러들이고 말하기를 나의 모든 가장집물(家什什物)과 토지전답(土地田畝)과 금은보화(金銀寶貨)와 노비권속(奴婢眷屬)은 오늘 이 시각부터 이 아이의 것이요, 나는 지난날 아무 곳에 살았었는데 깎깎 사이에 이 아이를 잃고 찾아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이 살림을 맡을 만치 되었기에 물려주려는 것이요 한다.

천태는 이를 받아부에서 가립 것과 버릴 것이 있던 공부에서 몽땅 넘겨주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법을 보여주시는 비유로서 다섯째 전부가업(傳付家業) 법화열

가 하겠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날의 법문이란 말이다. 중생들의 근기(根機)도 무량무변하고 부처님의 법도 무량무변하시니 가급적이면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맞는 법을 설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때와 장소를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근기가 비슷한 사람이 모였으면 모인 이들이 모두 수준이 꼭 같은가, 그렇지 않다. 그날의 법과 연이 되어서 왔더라도 역시 수준의 차이가 다시 있어 당일 청법대중(聽法大眾)의 대표로서 나서서 부처님께 삼전건성(三展虔誠), 즉 대중에서 일어나고, 합장(合掌)공경(恭敬)하고 간곡히 부처님께 여쭙는(而白佛)등 세 가지

### 수준 엇비슷한 사람에게 '맞춤 설법' 원칙삼아 세가지 의식 통해 법문 청하면 단계적 설명

반시(法華涅槃時)라 했다.

#### 대기설(1)

우리들도 누구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면 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판이 벌어지고, 기왕 판을 벌리려면 총명한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듯이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들어드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인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청해야 입을 여셨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법을 청했을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청해서 들은 사람들, 즉 청중(聽衆)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대기(對機)라 하였으니, 대기란 상대할 대(對)와 기(機)를 기(機), 두 글자를 썼다. 대(對)자는 상대가 된다는 뜻으로서 그 날 설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상대란 뜻이요, 기(機)자는 재목, 또는 그릇이란 뜻으로서 경전(經典)에서는 이를 근기(根機)라 부르는데 대체로 포대 수준 등의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 어쨌든 그날 설하시는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알맞은 그릇들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근기가 미리 정해진 것이라면 나머지 백성들은 부처님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말인

의식을 통해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게 하는 당기(當機), 또는 상수(上首)가 있는가 하면 설적기(攝跡起疑)하는 발기자(發起者) 대해 답변으로 상당수의 상근기(上根機)는 득처(得處)가 생기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가 '그렇다면'이란 전제하에 전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혹은 그 다음은 어찌 되는 것인가 등등의 부수적(附隨的)인 의문(疑問)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을 퍼는 이를 발기자, 또는 발기인(發起人)이라 부른다.

이렇듯, 첫째, 둘째, 셋째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경말(經末)에 이르러서는 모였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 룡 아차 건달바 귀신 등이 득미증유(得未曾有)하여 환희음악하면서 물러갔다하니, 결국은 한 회상에 모인 대중은 끝내 깨달음을 얻고 물러가게 되었음으로 중간에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다 해당근기라 하여 당기라 부른다. 하(下)기야, 불교의 궁극적인 논리는 '중생은 모두가 본래 부처다' 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천태(天台)의 오시교(五時教)와 현수(賢首)의 오교(五教)라는 교판(敎判)이 있다고 했다. **봉선사 조실**

## 괴로움 벗어나려면 '공식' 을 알라

### 월일스님의 신행 지침서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식이 있을까?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있다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선과 악을 축으로 하는 이분법적 공식과 행복과 불행 축으로 하는 공식 등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공식은 공식일 뿐

이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세상살이가 아닌가.

인터넷 카페 '부처님말씀 바로알기'를 운영하고 있는 월일 스님은 깨달음에 공식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도연기법이 그 공식의 실체. 중도나 연기법은 선악이라든가 행복과 불행과 같은 대립적 개념의 공식이 아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혹은 중중무진으로 얽혀 있는 중생의 번민들은 모두 연기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된다. 깨달음의 공식이란 말이다.

월일 스님은 책에서 아홉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삼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자아란 존재하는가? 등등. 이들에 대한 대답은 철저하게 부처님의 초기법문(니까야)을 통해 구하고 있다. 그 핵심이 중도연기의 가르침이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모든 것에 무불통지하여 세상을 벗어나 불세계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갈망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 버리고 자아취착 없이 현상을 바로 통찰하여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월일 스님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공식은 허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생겨야 한다. 그간 학술적인 측면에서 혹은 교리연구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중도연기에 대한 시각과 차별되는 월일 스님의 견해가 책의 무게감을 더한다. 설악산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과 전 해인사 강주 스님도 '추천의 말'을 통해 이 차별된 견해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김중수 감수 | 민족사 펴냄 | 1만2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누구나 하는 고민 누구나 풀어주진 못한다

### 법상 스님의 인터넷 상담집 '기도하면 누가 들어 주나요'



-저는 30대 중반 회사원으로 이제 곧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일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중략)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후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중략) 불안한 이 마음을 해소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공정으로, 전체적인 수용과 받아들임으로, 또 치우치지 않은 지켜봄의 수행으로 삶을 새롭게 보면 내 마음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략) 지금 법우님에게 중요한 것은 손에 딱 잡히는 답변, 즉 취직 자리를 알아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자리를 바꿈으로써 현실이 바뀌길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민을

털어 놓고 시원한 답을 듣는 길은 많지 않다. 인터넷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www.moktaksoni.org)'를 통해 접속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법상 스님이 상담 사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1999년부터 불교와 수행 명상과 행복에 관한 글을 책과 인터넷 등으로 발표하며 '참살이'의 길을 안내 해 온 법상 스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실토한다. 그러나 스님이 배운다는 것은 곧바로 고민을 털어 놓는 대중들의 가슴으로 따뜻한 빛이 되어 회향된다.

책에 실린 상담 사례들에는 깊은 명상의 세계에서 되비쳐지는 삶의 가치가 담겨 있다. 그것이 법상 스님의 상담 노하우다. 인터넷 사이트라는 쌍방향 소통의 도량에서 뒹뒹하며 사는 삶의 튼튼한 기본기를 전해 주는 것이다. 책의 구성이 '살' '마음' '불교' '수행' 등의 장으로 나뉘진 것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법상 스님이 소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결국 독자 자신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기도하면 누가 들어 주나요 | 이출출판사 | 1만 원  
임연태 기자

### 깊고 넓은 '화엄'을 마셔봐



화엄경약찬게 법문(1)  
우학스님 지음 | 좋은인연 펴냄  
1만원

<화엄경>은 방대하다. 10조9만5천48자로 이루어진 경전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뒤 첫 법문이기도 하다. 이 방대한 법문을 7자로 된 110구로 축약한 것이 '화엄경약찬게'다.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설과 그의 감수아래 지어진 것이란 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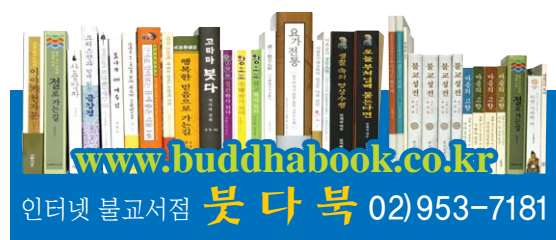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통해 포교의 신기원을 이룬 우학 스님이 이 110구절의 약찬게를 풀어냈다. 첫 번째 책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첫 구절에서 '해인삼매세력고' 열번째 구절까지 해설하고 있다.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뜻만 풀이한 것이 아니다. 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교리들을 두루 인용하며 '설법의 화엄'을 이루고 있다.

쉬운 언어와 직설화법이라는 우학 스님 특유의 화술이 책에 그대로 용해되어 있어 글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자상한 법문을 듣는 기분이다. 우학 스님도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큰 공덕이지만, 뜻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한다"며 "어려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쉬운말로 풀어 쓰고 있으니 잘 헤아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공덕 짓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책의 말미에는 '화엄경약찬게' 전문을 실었다. **임연태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법륜스님의 죽음죽설	법륜	정도
3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인과경	현담	선
5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부처를 싸다	현각	김영사
7	답답하면 물러라	법륜	정도
8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9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10	춘성	김광식	새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초판 발행 이후 12년 만에 개정판 발행!!



글·현진 스님  
신국판 / 280면 / 정가 10,000원

12년 전에 출판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현진 스님의 수행 에세이 <두 번째 출가>는 초판의 내용을 조금 첨삭하고 사진을 바꾸는 등 멋스러움을 가미하여 개정판을 내놓았다. 현진 스님은 그야말로 '글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글을 쓰다 보니 책으로 엮이게 되고 이러한 책을 읽는 이들은 감시의 멈춤도 없이 한숨에 다 읽어버리는 재미를 느끼게 되니 진정한 이 시대의 글꾼이 아니겠는가?

현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에서 공부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금은 청주 관음사에 머물면서 서원대학교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삭발하는 날> <잠자는 스님이야기> <신문, 저인턴 십번지> 등이 있다.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송(02) 2198-5153

### 수필가 문윤정이 만난 우리시대의 53선지식의 이야기



글·사진 문윤정  
신국판 / 344면  
정가 13,000원

### 우리 시대의 53선지식을 만나다

수필가 문윤정 씨가 2006년부터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은 53명의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저자가 스스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되어 찾아다닌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에 배대(配對)하여 행화(行化)와 가르침의 의미를 결부시킨 점이 돋보이는데 작가는 서문에서 '선지식이란 스승 또는 도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명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사람들이며, 그 현실을 통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윤정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였고, 98년 '수필공원(현 에세이 문학)'을 통해 등단하였다. 지금은 <아름다운 인연> 객원 기자이며,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신의 아침을 위하여>, <첫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줌>, <마음의 눈> 등이 있다.

(02) 2198-5151